

극단 얼·아리 '발톱을 깎아도' 제32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3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막을 내린 제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과 연출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극단 '얼·아리'의 '발톱을 깎아도'.

광주 연극, 1983년·1998년 이어 16년만의 쾌거

양정인씨 연출상·노희설씨 최우수연기상 '접경사'

'노령화' 직설화법 대신 일상 속 코믹하게 풀어내

지난 1983년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작은 광주 극단 '시민'의 '소작지'였다. 광주 연극이 두번째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 지난 1998년 제16회 전국연극제. 극단 '진달래 피네'의 '취선록'이 수상작이었다. 이후 오랫동안 광주 연극은 대통령상과 인연이 없었다.

광주 연극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제32회 전국연극제에서 극단 얼·아리(대표 양태훈)의 '발톱을 깎아도'가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과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16년만의 쾌거다.

지난 6월16일부터 3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각 시도 예선을 거친 15개 팀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박숙자씨가 희곡을 쓴 '발톱을 깎아도'는 노부부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무거운 소재지만, 주제에 짓눌리지 않고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해 관객들의 부담을 덜었다.

주인공은 항구도시 변두리에 사는 노부부 대우와 순애. 순애는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 허리와 관절이 좋지 않아 걷는 모양새가 우습다. 대우는 방문 요양 보호사를 받기 위해 순애가 힘들게 걷는 것을 더 과장되게 연습시킨다. 그러던 와중에 순애가 집에 불을 내자, 대우는 순애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고 과장된 행동을 세심하게 코치하면서 각종 해프



연출 양정인 배우 노희설

닝이 벌어진다. 지난 1993년 창단한 극단 얼·아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얼·아리 창단 멤버인 양정인 연출은 "대통령상 발표에 심장이 터져 버린 줄 알았다는 단원도 있었다"며 웃었다. "공연 당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전국연극제 예선전적인 광주연극제 소식을 듣고 타 시도 극단들 사이에서 광주 연극이 불만하다는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 광주 연극이 수상한 게 16년만이라고 들었다. 광주 연극이 인정을 받아서 기쁘고, 그 자리에 '얼·아리'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지역에서는 드문 여성 연출가인 양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도덕적 도둑',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등 20여 작품을 연출했다.

"이번 연극이 노령화라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려 하지는 않았다. 노부부의 삶을 중심에 놓고 자연스런 일상을 보여주면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쫓아올 거라고 봤다. 노령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문제고,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다. 관객들이 그런 점에서 자기 일처럼 공감하는 것 같다. 무거운 사회문제를 꼭 짚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 보여주려했고 그런 내용이 코믹하게 풀리면서 관객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번 수상의 많은 부분은 배우들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들에게 고맙다."

대우 역을 감칠맛 나게 선보여 광주 배우로는 최초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노희설씨는 순애 역을 연기한 정경아씨와 실제 부부 사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두 배우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이다. 연극 속 주인공처럼 오랫동안 아팠던 노씨 어머니가 연중 중 세상을 떠났고, 장능이며 TV, 선풍기 등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세간살이는 고스란히 무대 소품으로 사용됐다.

"연극 작품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는 공동작업이다. 여러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동료 배우로서 아내 정경아의 연기가 정말 좋았는데 수상하지 못한 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노희설)

이번 작품에는 두 사람 이외에도 최용규·한종신·이지은·정일행·이춘석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으며 이현·고난영·오영목·건건·김홍미·이광득씨 등이 스텝으로 참여했다.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은 "광주 연극이 대통령상과 좀처럼 인연이 없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좋은 작품인 만큼 앙코르 공연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의 지향과 과제

전남대 BK21플러스, 오늘 전문가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여기반 문화기차출발 인 재양성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과 교수)이 4일 오후 2시 인문대 2호관 교수회의실(408호)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지향과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의 현황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김 단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의미와 방향 ▲문화전당의 지향과 과제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김 단장은 문화전당이 '문화와 경제' '대중성과 작품성' 두 측면을 조화롭게 엮어나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 도심공동화 해소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할 방침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9회 영·호남 교류전 4~13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하나의 정원 대구·부산 등 6개 지역 116명

올해 제29회를 맞은 영·호남 교류전이 4~13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과 광주미협(회장 나상욱)이 공동주최하는 영·호남 교류전의 주제는 '하나의 정원'이다.



손영환 작 '봄이 등대란다'

대구·부산·전북·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교류전인 영·호남 교류전은 지역성을 허물고 융합하는 사회정서 조성과 미술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올해는 제주와 울산 지역 미술인들이 참여함에 따라 모두 6개 지역에서 116명(광주 43명, 타지역 73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수묵화, 유화, 판화, 조각 등 모두 116점을 선보인다.

화단의 원로작가부터 중견·청년작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공간에 전시, '미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연출하

는 '어울림의 장'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황영성 관장은 "동참하는 지회의 증가 등 영·호남 지역 간 활발한 미술교류는 중앙화단에 집중되는 예술문화에서 벗어나 지역과 중앙의 균형 있는 성장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희망으로 채운다

WWW.현대미술가회' 전 9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

광주지역 여성 작가들로 구성된 'WWW.현대미술가회'가 오는 9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열두 번째 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류현자, 박수옥, 백예경, 이선희, 이영민, 임수영, 정정임, 조선아, 조수경, 채경남씨 등 회원 10명이 참여해 모두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다. 올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으로 채워야 했던 시민들의 마음 속 공간을 희망과 기쁨으로 채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작가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화폭을 채색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현대미술가회' 전 9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



이선희 작 '초대받은 손님'

내 소장품 경매가는?

유당아트-아트타운갤러리
'진품 명품 예술품 경매'
5일~8월9일 예술의 거리

사립 갤러리 2곳이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미술품 경매행사를 연다. 유당아트(대표 박창균)와 아트타운갤러리(대표 정인)는 5일부터 8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진품 명품 예술품 경매'를 진행한다. 넷째주 경매는 금요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의뢰 작품, 유당아트와 아트타운갤러리 소장작품, 광주 지역 갤러리 의뢰 작품 등 회

화, 도자기, 고미술품을 비롯해 모든 예술품이 경매된다. 경매되는 작품들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전시, 관람객들에게 먼저 선보인다. 경매는 최저가 출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당아트는 지난 4년간 매주 2차례 경매행사를 진행하면서 노후유를 쌓아왔다. 유당아트 박창균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경매행사를 진행하고, 경험을 타운갤러리에서 '진품 명품 예술품 경매'를 찾려는 방안을 구상중"이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광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32-7141. /김경민기자 kki@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사제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듈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